



食品流通과 消費行態

黃 基 鉉

<國立農業經濟研究所>

라. 食빵의 消費分析

어린아이가 군것질로 사먹는 빵을 除外한 西歐式 토스트用 食빵이 우리나라에서 生産된지는 몇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規模가 큰 빵類 生産業體인 S社의 경우 1968년부터 토스트用 食빵을 조금씩 生産하게 되었고 電子製品 生産業體인 K社에서

(表 15) 消費家口의 所得階層別 食빵 消費量 (1973, 서울)(단위: 個/900g)

家 口 當 月 所 得	家口當	많이 먹는 1인當	적게 먹는 1인當	平 均		
				1人當 1個月	1人當 1年	家口當 1個月
30,001원 以下	31	0.4	0.2	0.2	2.4	1.1
30,001~ 60,000	156	0.7	0.4	0.5	6.0	2.9
60,001~ 90,000	95	1.0	0.5	0.6	7.2	3.6
90,001~ 120,000	97	1.1	0.7	0.9	10.8	5.4
120,001~ 150,000	29	1.3	0.7	1.0	12.0	6.7
150,001원 以上	36	1.5	1.0	1.3	15.6	8.7
計 또는 平均	444	0.9	0.5	0.7	8.4	4.2

1) 調査에서는 토스트用 食빵만을 對象으로 하였으나 간혹 主婦에 따라 호빵 또는 製菓店의 「과운드빵」등을 함께 포함했을 可能性이 있다.

資料: 消費家口 調査

1969년부터 食빵을 굽는 「토스타」(toaster)를 生産 販賣하였으며 粉食獎勵 政策과 더불어 近年에는 食 빵의 消費量이 많아졌으며 店舖의 規模가 매우적은 所謂 구멍가게를 除外한 食料品店에서는 어디서나 食빵을 販賣하고 있는 程度이다.

表15에서 보던 서울 市內 調査家口의 1人當, 平均 消費量은 比較的 많이 消費하는 겨울과 봄철에는 1個月에 0.9個 程度이고 적게 消費하는 여름철에는 0.5個 程度로서 아직 消費量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混粉食獎勵政策과 食糧消費에 關한 계몽에 따라 都市民 가운데 많은 家庭에서 메트로 빵으로 食事を 代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빵에 대한 認識이 間食이나 끼니를 補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食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牛乳, 버터 또는 마아가린을 함께 消費하게 되어 食빵이 主食으로 充分하다는 認識을 갖게되면 餘他 生活樣式의 變化 와 함께 食빵, 消費量은 繼續 增大될 것 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食生活의 內容變化는 食糧政策과 供給構造에 큰 制限이 없을때 繼續될 것 은 물론이다.

즉 小麥輸入政策에 따라 食品消費構造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 牛乳(市乳)의 消費

1950年以後 우리나라 國民의 牛乳消費 推移를 概觀하면 動亂後 救護用 脫脂粉乳의 大量流入(輸入)에 의하여 60年代末까지 消費量은 國民의 所得水準에 比하여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救護用 脫脂粉乳의 流入에 의하여 國內의 牛乳生産이 相對的으로 沮害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表16에서 보는바와 같이 總供給量이 어떻게 消費되었던 간에 1人當 GNP가 106\$이었던 1965年의 1人當 消費量이나 242\$인 1970年의 消費量에 差가 거의 없음은 以上の 事實을 말해준다. 이러한 救護用粉乳의 消費는 食生活 또는 經濟生活水準과 連結된 需要가 아니고 他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1年을 지나면서 救護用 牛乳의 導入量이 激減함에 따라 牛乳需給에서 國內生産 牛乳의 比重이 急速하게 增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年의 1人當 消費量은 하루에 12g 程度로서 이는 歐美先進國의 먼 過去 統計로도 比較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食生活와 가장 類似한 日本과 견주어 보더라도

20餘年前인 1950年頃의 消費水準과 같은 程度이다.

이와같이 볼때 우리나라 牛乳의 純粹한 消費動向은 市乳(병우유)의 消費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1967년부터 보면 1人當 消費量이 增加하는 率은 높 다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 消費量이 많지 못하여 1973年에도 1人當 1日平均 消費量은 4.6g에 不過하다. 現實的으로 農村사람들이 牛乳를 消費하는 量은 無視할 程度일 것이므로 이를 都市사람들이 消費한 것으로 假定하면 1973年에 1日 8.8g 程度된다. 이와 같이 다른나라에 比하여 市乳의 消費量이 低位水準에 있는 理由는 國民所得이 比較的 高級食品인 牛乳를 많이 消費할 수 없는 水準에 있으며 農業構造가 主穀生産에 偏重되지 않을 수 없는 自然的 構造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農業生産構造와 같은 要因들을 주어진 條件으로 두고 家口當의 所得水準에 따라 市乳의 1人當 消費量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表16에서 보면 月所得이 3萬원 以下의 家庭에서는 1日 3.3g 밖에 먹지 못하나 所得이 높을 수록 消費量은 正比例로 增加하여 15萬원 以上の 家庭에서는 1日 65g을 消費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表 16) 消費家口의 所得階層別 市乳(병우유) 消費量(1973,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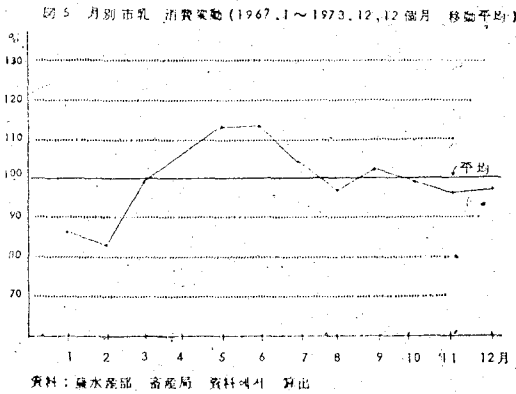
家 口 當 月 所 得	家 口 當	많이 먹는 달		적게 먹는 달		平 均	
		1 人 當 1 日	家 口 當 1 日	1 人 當 1 日	家 口 當 1 日	1 人 當 1 日	家 口 當 1 日
30,000원以下	31	(ml) 7.4	(병) 0.2	(ml) 2.4	(병) 0.1	(ml) 3.3	(병) 0.1
30,001~60,000	156	18.2	0.6	11.5	0.3	13.7	0.4
60,001~90,000	95	26.6	0.8	18.4	0.5	24.4	0.8
90,001~ 120,000	97	42.3	1.3	31.9	0.8	37.5	1.3
120,001~ 150,000	29	46.0	1.5	28.5	0.8	40.8	1.5
150,001원以上	36	67.5	1.9	58.2	1.3	65.1	2.4
計 또는 平均	444	29.9	0.9	20.8	0.6	26.2	0.9

牛乳는 營養價가 높은 食品이라는 認識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牛乳를 더 많이 消費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所得增加가 이러한 消費增加를 主導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市乳도 하나의 食料品이기 때문에 全體的 食生活 類型이나 慣習과 分離하여 生覺할 수 없는 것이므로 粉食, 特히 빵食이 慣習化되는 食生活樣式과 더불어 消費量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牛乳는 乳牛의 몸을 통한 二次的 生産이기 때문에 高級化 되는 反面 사람이 直接 農産物을 消費하는 것보다 훨씬 高價이기 마련이며 先進國에서 보다 우리나라에서는 所得彈力性이 매우 큰 食品이다. 그렇기 때문에 所得增大에 의하여 그 消費量은 繼續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한편 牛乳(市乳)의 消費는 圖5와 같이 季節別로

심하게變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가장 많이 먹는季節은 봄과 초여름인 4~6월이고 겨울철에比較的 적은데,季節에 따라消費量이 크게變하는 것은先進國과 같이牛乳가 食事의 큰部分이 되지 못하고營養補充 또는嗜好食品의 범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1월부터 2월의消費量이減少하는 것은 2월에舊正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表 17) 主婦의 職業有無別 主要便宜食品 消費量(1973, 서울)

主婦의 職業	家口數	家口當得(원)	면(個)		빵(個)		우유(병/180ml)	
			1人當 1個月	家口當 1個月	1人當 1個月	家口當 1個月	1人當 1個月	家口當 1個月
有	59	75,000	3.2	17.7	0.6	3.2	4.3	23.4
無	389	78,547	3.2	18.0	0.7	4.1	4.5	24.0
計 또는 平均	448	78,094	3.2	18.0	0.7	3.9	4.4	23.9

資料: 消費家口 調査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家口調査 結果(表 17)는 主婦의 職業有無간의 便宜食品 消費量에 差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判斷된다. 즉 現在の 1人當 平均 消費量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매우 적은 狀態에 있으며 主婦의 職業有無에 따라 家口當의 所得에 差가 僅少한 것으로 보아 現在の 낮은 消費水準에서는 便宜食品의 消費에 影響을 주는 것은 그 便宜性보다 所得이 크지기 때문이다.

(2) 主婦의 學歷과 主要便宜食品 消費

飲食에 關한 限 主婦는 家庭이라는 小그룹의 意思指導者라고 할 수 있고 主婦의 學歷이 높을수록 보다 進取的이며 새로운 食品을 받아들이는 데 보다 積極

바. 年齡別 主要便宜食品 消費

(1) 主婦의 職業有無와 主要便宜食品 消費
한 家庭의 主婦가 家庭 밖에서 職業을 가지면 一般家事나 飲食準備에 充分한 時間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一般家庭의 경우 飲食準備에 매일 消費하는 時間은 4.6時間이고 主婦 한사람이 消費하는 時間도 3.1時間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主婦가 職業을 가지는 理由는 家庭經濟가 困難한 때문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小家族이거나 將來에 潤澤한 生活를 目的도 없지 않으므로 主婦가 職業을 가지고 있는 家口는 比較的 所得이 많을 수 있으므로 便宜食品을 더 많이 消費하게 되리라는 假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主婦의 職業은 한 家庭의 食生活 樣式을 變化시킬 수 있다는 假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 食料品의 種類와 食生活 樣式은 主婦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며 또한 이들 食品의 消費에 關한 主婦의 意思決定은 그들의 學歷 또는 知識水準에 따라 相當히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라면의 消費量은 主婦의 學歷水準이 大退 이상의 階層에서는 減少하고 있으나 食빵과 牛乳의 消費量은 主婦의 學歷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있다. 즉 主婦의 學歷이 高退이상 階層에서 國卒層보다 食빵을 倍로 먹고 있으며 牛乳는 5배이상 먹고 있다.

물론 主婦의 學歷이 높을수록 家口當의 所得이 顯저하게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事實을 所得과 關聯없이 主婦의 學歷만에 의한 影響이라고 볼 수는 없는 複合效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主婦의 年齡과 便宜食品 消費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보다 進取的이므로 새로운 飲食에 대하여 보다 積極的인 態度를 取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飲食에 關한 限 主婦는 한 家庭의 意思指導者이므로 主婦의 年齡도 學歷 勿論 食生活樣式에 크게 影響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假定下에 主婦의 年齡에 따른 便宜食品의 消費量을 보면 牛乳의 消費量에서만 差異가 뚜렷이 있었다. 즉 主婦가 보다 젊은 家口에서 1人當 또는 家口當 牛乳의 消費量이 많다는 事實을 볼 수 있다. 물론 總家口員에서 1~20歲 되는 家口員의 比率이 55%이나 이들이 消費한 牛乳의 量은 68%가 되는 것을 보면 年少層에서 많이 消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主婦의 年齡이 젊을 경우 乳兒의 比率이 클 것이므로 자연 牛乳의 消費量도 많을 것이라는

(表 18) 家口主의 職種別 主要便宜食品 消費量(1973, 서울)

家口當의 職種	家口數	면(個)		빵(個)		牛乳(병/180ml)	
		1人 1個月	家口當 1個月	1人 1個月	家口當 1個月	1人 1個月	家口當 1個月
精神勞動	337	3.3	18.6	0.8	4.4	5.0	26.9
肉體勞動	90	2.9	15.7	0.5	2.6	2.5	13.6
計 또는 平均	427	3.2	17.9	0.7	4.0	4.4	23.2

資料: 消費家口調查

家口에서 消費量이 적은 것은 分明하다. 이의 裏面에는 肉體勞動을 하는 사람보다 精神勞動을 하는 사람의 所得이 높다는 事實과 또 肉體勞動을 主로 하는 사람은 普通 한끼의 飲食量이 많으며 따라서 라면, 식빵 또는 牛乳는 滿腹感을 채우는데 不適當하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表 19) 家口員 年齡階屬別 主要 便宜食品 消費量 比率(1973, 서울)

家口員年齡階屬	家口員數	年齡比	라면	식빵	우유
1~10歲	190	(%) 7	(%) 17	(%) 9	(%) 12
11~20	1,170	46	62	60	56
21~40	514	20	17	16	14
41~60	619	24	13	14	16
60歲 以上	70	3	1	1	2
計	2,563	100	100	100	100

資料: 消費家口調查

論理도 成立될 수 있다.

사. 家族構成과 主要便宜食品 消費

(1) 家口主의 職種과 便宜食品消費

家口主의 職種에 따라서도 食生活樣式 特히 便宜食品의 消費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家口主가 肉體勞動을 하는 家口의 경우 라면, 식빵 또는 牛乳와 같은 食品의 消費는 相當히 制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家口調査의 結果(表 18), 家口主가 肉體勞動을 하는 家口에서 보다 精神勞動을 하는 家口에서 便宜食品의 消費量이 大體的으로 많았다. 便宜食品의 消費量 自體가 아주 적은 水準에 있으므로 兩側 消費量間의 差는 크지 않으나 家口主가 肉體勞動을 하는

(2) 家口員의 年齡階屬別 便宜食品 消費比率

一般的으로 年少層에서 便宜食品을 많이 消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와같이 表19에서 보면 1~20세 사이의 年少層 家口員이 便宜食品을 많이 消費하였다.

즉 1~20세 사이의 家口員 比率은 全體 家口員數의 55%이나 이들이 消費하는 便宜食品의 量은 約

(表 20) 主要便宜食品의 消費 時點別 消費量 比率(1973, 서울)

消費時點	라면	식빵	우유
	(%) 7	(%) 21	(%) 48
아침	54	29	15
점심	16	7	7
저녁	23	43	30
計	100	100	100

資料: 消費家口調查

70%가 되었다.

이와 反面에 21세 以上の 年齡層은 比較的 적은 量을 消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年少層이 이들 食品을 많이 消費하는 事實을 볼 수 있는데 一般적으로 어린아이들이 間食을 좋아하며 牛乳는 特히 乳兒의 食糧으로도 많이 消費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아. 消費時點別 便宜食品 消費比率

이들 便宜食品이 消費되는 時點으로 表20와 같이 區分하여 보면 라면은 점심과 間食으로 總 消費量의 77%가 消費되며 食빵은 間食으로 43%, 점심에 29%가 消費되고 있다. 食빵은 豫想과는 달리 아침 食事때에 消費되는 比率이 많지 않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牛乳(병우유)는 아침에 48%가 消費되고 間食으로 30%가 消費되므로서 正規食事때 消費되는 量은 적다. 그 까닭은 各 家庭에 冷蔵庫 普及이 未洽한 때에도 있겠으나 牛乳를 常食하는 慣習이 되어있지 않고 아직도 所得水準이 低지 못한 탓일 것이다.

사. 主要便宜食品에 對한 消費者 不滿

이들 便宜食品에 대하여 消費者(主婦)들이 갖는 가장 큰 不滿은 價格이 비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購買者(消費者)는 언제나 廉 價格을 願하며 販賣者는 높은 값을 원하게 되는 것이 常情이므로 消費者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을 客觀적으로 判斷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大多數의 消費主體가 갖는 不滿이므로 企業의 販賣政策面에서는 이를 輕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製造日자와 有効期間의 分明한 表示를 要求하고 있으나 貯藏方法을 明示하지 않은 狀態에서 各 食品에 대하여 製造日자와 有効期間의 表示는 意味가 없을 수도 있음을 생각할때 이것을 消費者들이 이들 食品에 대한 意見이나 態度의 表示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대체적으로 各 食品에 대하여 消費者의 疑懼心은 衛生과 關聯된 問題로 集約되는바 防腐劑의 過多 使用이나 빈 우유병의 衛生處理 또는 品質의 變質과 腐敗등에 關한 것이 大部分이다. 이러한 것은 過去 不良·不正食品과 關聯하여 物議가 많았으므로 加工食品에 대한 消費者의 過敏性을 나타내고 있는 點도 없지 않다.

사. 便宜性에 대한 主婦의 態度

라면이나 食빵을 繼續 主食으로 먹을 수는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라면 또는 食빵을 먹는 것과 밥을 지어먹을 때의 便宜性에 대하여 主婦의 意見을 물었다.

表 21에서 보던 라면은 主婦의 89%가 밥을 지어 먹는 것보다 便宜하다는 意見이었다.

(表 21) 라면과 食빵의 便宜性에 대한 主婦의 態度(意見)

밥을 지어 먹는 것 보다	라 면		식 빵	
	家口數	%	家口數	%
便宜하다	378	89	228	62
비슷하다	37	9	99	27
불편하다	10	2	39	11
計	425	100	366	100

資料: 消費家口 調査

食빵에 대하여는 62%의 主婦가 便宜하다고 하였으나 11%는 오히려 煩雜스럽고 不便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食빵을 구워 먹는 토스타가 아직 많은 家庭에 普及되지 못하고 있고 食빵을 主로한 食事準備에 많은 主婦가 익숙하지 못한 事實과 關連성이 있는 듯하다.

카. 便宜食品의 값에 對한 消費者의 態度

同一한 이름의 飲食이라 해도 음식의 內容과 質의 差異에 따라 費用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比較에

無理가 없지 않으나 보통으로 밥을 지어먹는 것과 라면 또는 식빵으로 食單을 마련하는 것을 表22와 같이 比較하여 設問하였다.

라면의 경우에는 12% 家口만이 비싸게 먹힌다고 하였으나 식빵의 경우 44%가 밥보다, 비싸게 먹힌다는 意見을 提示하였다.

(表 22) 밥과 라면 또는 식빵의 값에 대한 主婦의 意見態度

밥을 지어 먹는 것과 비교할 때	라 면		식 빵	
	家口數	%	家口數	%
싸게 먹힌다	271	63	84	22
비슷하다	109	25	129	34
비싸다	51	12	164	44
計	431	100.0	377	100

資料: 消費家口 調査

타. 便宜食品에 대한 消費者의 將來豫想 態度

便宜食品의 消費는 消費者의 所得水準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將來에 所得의 增大나 便宜食品의 價格이 變化하는 것을 前提하지 않고 單純히 消費者의 將來豫想

(表 23) 所得倍增時 便宜食品에 對한 消費者의 將來 豫定度

態 度 變 化	라 면		식 빵		우유(생우유)	
	家口數	%	家口數	%	家口數	%
많이 더 사 먹겠다	45	11	111	27	198	49
약간 더 사 먹겠다	91	22	149	39	108	27
지금만큼 계속 사 먹겠다	245	59	149	36	95	24
지금보다 적게 사 먹겠다	35	8	4	1	0	0
計	416	100	413	100	401	100

資料: 消費家口 調査

다, 즉 앞으로 라면의 1人當 消費量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으나 食빵과 牛乳는 國民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所得이 倍增한다 할지라도 相當數의 家口가 食빵과 牛乳를 지금정도 만큼만 먹겠다는 態度를 보인것은 그만큼 食生活의 갑작스런 變化를 싫어하는 消費者의 保守性을 表示한 것이다.

을 設問하였다.

라면의 경우 43%의 家口에서는 現在보다 더 먹게 될 것 같다는 意見이었고 57%는 現在 먹는量 만큼 먹거나 적게 먹게 될 것 같다는 意見이었다. 이에 反하여 食빵은 64%의 家口가 더 먹게 될 것 같다는 積極的 展望을 示하였고 36%는 消極的인 展望을 보였다. 한편 牛乳는 62%의 家口가 現在보다 더 먹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38%가 消極的인 展望을 보이고 있다.

한편 1人當 實質所得이 倍로 增大될 時期가 몇年度일 것인가는 將來의 알이므로 正確히 豫測할 수는 없으나 (經濟企劃院 推定에 의하면 1978~1979年) 所得이 倍로 늘어났을 때의 便宜食品 消費에 대하여 豫想的 設問을 한바 라면은 33%의 家口만이 더 먹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67%는 現在の 量만큼 먹거나 지금보다 적게 먹게 될 것이라고 答하였다. 식빵의 경우는 63%의 家口가 지금보다 더 먹겠다고 하였고 1%만이 지금보다 적게 먹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表 23). 所得이 倍로 늘어날 경우, 牛乳를 지금보다 적게 먹겠다고 한 家口는 全혀 없고 24%만이 現在の 量만큼 먹겠다고 하는 消極的 反應을 보였고 76%는 지금보다 더 먹겠다고 應答하였다.

이와같은 結果로 豫想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

參 考 文 獻

- 한국식품공업협회, 食品工業, 1~20號
-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3
- 農林部, FAO韓國協會, 食品需給表, 1970~1971
- 農村振興廳, 食品分析表, 1970
- FAO, 韓國人營養勸奨量, 1973(7版)
- 韓國營養學會, 農村振興廳, 食生活構造改善과 營養政策, 1973
- 唯足康彦, 食料の經濟分析, 國文書院, 1971
- 岸根卓郎, 現代の食料經濟學, 當民協會, 1972
- 全國食生活改善協會, 食品工業自體(日本), 1967
- 光琳書院, 食品工業の年鑑, (日本), 1973